

Beethoven
Piano Concerto
No. 5 in E-flat Major
"The Emperor"

Beethoven
Symphony No. 7
in A Major

BEETHOVEN

함신의
지휘

임주희
피아노

2023. 6. 27. Tue. 7:30pm 롯데콘서트홀 | LOTTE
CONCERT HALL

THANK YOU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 사 장 문형주

부 이 사 장 안정근

이 사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한수향

감 사 김일규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2 - 2023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노루그룹 하나은행
마 스 터 즈 Circle	(주)EG
말 러 Circle	(유)세봉 (주)에프에스티 (주)티에스이 한영재
브 램 스 Circle	(주)디에스케이 (주)골프존
브 루 크 너 Circle	김석수 성시열 신승일 어스빌리지
슈 베 르 트 Circle	김창석 (주)다진 (주)면사랑 안정근 윤종웅 영앤진세무법인 (주)오로스테크놀로지 (주)세아제강 전동규 (주)제이씨케미칼 (주)풍산 황인혜
베 토 벤 Circle	(주)동호 심 현 이경혜 (주)이솔 엔피코리아 윤재원 장원기 최영애 한태준 홍종관
쇼 팡 Circle	김윤자 문형주 송백규 주재식 제은경 최승식 한수향 황미영 (주)KNW
모 차 르 트 Circle	권상준 김일규 (주)내자인 두리엔 서석호 법무법인산경 (주)아큐스 양서윤 양세이 이영숙 이성재 이정화 이종민 유기숙 원장희 윤석애 신영만 전홍구 정미라 한정숙 (주)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현재란
하 이 든 Circle	고윤영 권영규 권영성 권용관 김병국 김성렬 김승택 김영덕 김영원 김원호 김중혁 김지강 박민렬 박민선 박태곤 방효성 백희정 봉 욱 서동수 성민호 송근용 신동영 이근혁 이동근 이미영 이연수 이영철 이일형 이희우내과 임경철 장윤정 정명훈 조백일 조상식 조용섭 조한구 최금숙 최용근 한문성 한지민 허길자 (주)GFS CHOI SUNG WON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



출발

지휘자 함신익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미국의 다양한 오케스트라에서 음악감독 경력을 쌓아왔다. 또한 오랜 전통을 지닌 유럽과 남미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다짐한다. 이후,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경험을 통해 후세를 위한 새로운 오케스트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오랜 준비를 거쳐 2014년 8월,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한다. 함신익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간다는 신념과 후원자들의 열정이 만들어 낸 작품이다.

목표

-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전한다.
-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가 되고자 한다.

음악적 방향

-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5년까지 머물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거듭나게 한다.
-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해 최상의 연주를 추구한다.
- * 해외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로 성장한다.

성과

- * 효율적인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함신익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Shinik Hahm & Symphony S.O.N.G

T.(02)549-0046/0947 F.(02)549-00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6, EG빌딩 B1
www.symphonysong.com

심포니 S.O.N.G
YOUTUBE



구독



좋아요



ARTISTIC DIRECTOR
SHINIK HAHM

함신익,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함신익의 인생여정은 평탄한 길보다는 험산준령을 오르내리는 등산가 또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탐험가와 흡사하다. 소년시절, 서민들의 애환이 가득한 삼양동 달동네의 개척교회에서 풍금으로 익힌 그의 음악감성은 정규적인 피아노를 배우며 성장에 속도를 더하게 된다. 그의 초·중·고 학생시절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고 배우고 자라며 축구와 음악과 자연에 빠지게 된다. 그가 대다수 연주자들과 다른 특이한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때부터 예술을 접하는 태도와 시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은 오늘의 함신익을 형성하는데 소금같은 역할을 한다. 함신익의 보석같은 소년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가며 생성된 사명의식의 발로가 된다.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함신익은 미국으로 간다.

라이스대학과 이스트만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운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된다.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 하였고, 철학 그리고 지휘 경험을 극대화시키며 프로지휘자로서 뺨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한다. 심지어 함신익은 아스펜의 여름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

20대에서 30대 초반 함신익은 미국에서 전문적인 학업을 부지런하게 한다.

그 후 세계지휘콩쿨에 입상하는 과정을 거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한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서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서 성장한다. 또한, 37세부터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서 23년간 재직한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이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을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대전시립교향악단(2001-2006) 과 KBS교향악단(2010-2012)의 예술 감독 또는 음악감독으로서 한국오케스트라의 중흥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그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그가 활발하게 연주한 콘서트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UN본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김멜센터, 스페인 빌바오, 말라가 심포니홀, 시애틀 베나로야홀, 볼티모어 마이어호프홀,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독일 캄니츠 주립극장, 독일 북서지방의 콘서트홀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브장송 오페라하우스, 아비뇽 오페라하우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리스트홀, 체코 프라하 드보르작 루돌피움, 스메타나홀, 베이징 국립대극장, 상하이 오페라하우스, 도쿄 오페라시티홀, 오사카 심포니홀, 폴란드 바르샤바 심포니 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홀, 태국 방콕 마이돈홀, 몽골 울란바타르 국립극장 등 그 밖의 많은 도시에서 순회연주 또는 그곳의 오케스트라들과 연주하였다.

그의 최근 행보는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전형적인 열정과 섬세한 지휘가 남미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첩두, 항저우, 귀양, 칭다오 등 중국 대도시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을 받아오고 있다.

2020년 시즌 이후 코로나로 인한 클래식 음악계의 불황은 민간 오케스트라의 존폐 문제까지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으나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곳곳한 자세로 단 한 번의 연주도 취소하지 않고 계획된 모든 연주를 성공적으로 소화해 나가고 있다. 2014년 그가 창단한 이 젊고 활기찬 오케스트라의 성장은 함신익이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들과 만드는 열정과 기적의 산물이다. 전문오케스트라가 쉽게 빠지기 쉬운 반복적 매너리즘을 박차고 뛰어나와 늘 새롭게 깨어나 살아있는 음악을 전달하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 함신익은 오늘도 산에 오르며 새로운 것을 찾는다.

오늘의 협연자

FEATURED ARTIST

피아노 임주희

Piano
Ju-Hee Lim

Juhee Lim

피아니스트 임주희는 9세였던 2010년 6월, 러시아 백야의 별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발레리 게르기예프의 지휘로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 카발레프키 피아노 협주곡 3번, 하이든 피아노협주곡 D장조를 4회에 걸쳐 협연하였다. 또한 2011년 8월 프랑스 앙시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데니스 마추예프와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무대에 올라, 기성 연주자 못지않은 기량으로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2012년 2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한국 공연에 깜짝 게스트로 초청받아 발레리 게르기예프의 지휘로 라벨 피아노 협주곡을, 2014년 서울시향과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협연하였으며, 같은 해 8월 서울시향 유럽투어 프리뷰 콘서트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협연하였다.

망설임 없는 과감한 표현과 비극적인 정서를 그녀만의 풍부한 감성으로 승화하는 방법론으로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주희는 2018년 평창대관령음악제에 'Soli deo Gloria'라는 제목으로 독주회를 가졌으며, 2020년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임주희가 연주하는 임주희'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작곡가 케롤베파가 그녀에게 헌정한 에튀드 임주희를 선보였다.

2022년 10월 카네기홀 데뷔, 그날 연주를 본 뉴욕의 언론은 '임주희는 만 가지 색상의 팔레트를 가진 피아니스트이다. 그녀는 드라마, 섬세함, 수사적 폭발, 그리고 시간과 침묵의 정교한 처리를 즐긴다.' 라고 전했다. 또한 2023년 2월 줄리어드 협주곡 콩쿠르 우승의 일환으로 뉴욕링컨센터에서 베토벤 협주곡 5번 황제를 줄리어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그녀는 2023년 5월 스페인 <Sociedad Filarmonica de Vilagarcia>과 일본 <후쿠야마 국제 음악 페스티벌>에서의 독주회와 협연을 마치고 6월 한국 청중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Q. 굉장히 어릴 때 데뷔하셨는데, 몇 살에 데뷔하셨나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네요. 9 살 때 아마하 리틀 피아니스트 리사이틀로 데뷔했습니다.

Q. 처음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던 당시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마에스트로 발레리 게르기예프의 초청으로 러시아 백야의 별 페스티벌에서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 네 번의 협연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9살이었습니다.

Q. 그 당시 협연하던 느낌과, 지금 성인이 된 후 협연할 때 느끼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 때 게르기예프 선생님께서 어린 저를 아티스트로 대우 해주시는 걸 보면서 무대에 대한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이미 무대에서의 마음가짐은 기성 연주자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이요. 지금까지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점은 연주 경험과 같이 책임감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Q. 세계 각지에서 많은 무대를 경험하셨는데, 무대에서 떨리지는 않으신가요?

세계무대에서 다양한 청중을 만난다는 사실은 두렵기보다 제게는 흥분으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그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Q. 무대에서 겪은 일 중 잊고 싶은 경험이나 기억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떤 경험인지 말씀해주세요.

무대에서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한번은 연주 중에 피아노 줄이 끊어졌던일이 있었어요. 중간에 피아노를 교체할 수 없었기에 끊어진 줄을 치지 않으려고 음을 바꿔가며 연주를 마쳤던 기억이 있어요.

Q. 연주가 없거나 연습하지 않을 때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시나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림을 그려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편이에요. 제 그림들은 제 SNS 계정에서 찾아 보실 있어요.

Q. ‘황제’를 연주한 경험이 있으신데, 특별히 어려웠던 점 말씀해주세요.

언제나 베토벤의 곡을 연주할 때면 작곡가가 처했던 상황에 대한 연구가 우선시 되곤 합니다. 불우한 가정사, 예기치 못한 질병, 경제적 몰락과 사랑의 상실 등 베토벤의 삶은 위기와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경으로 인해 그의 음악이 빛나는 것처럼 음악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제가 청중들을 그의 음악에 자신있게 다가가게 해줄 수 있거든요.

Q. 베토벤의 협주곡 5개 중에서 5번 ‘황제’가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1809년 작곡한 제 5 번 피아노 협주곡 ‘황제’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중 단연 최고로 뽑힐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만들어진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장대한 스케일과 송고한 분위기가 마치 황제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황제’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절묘한 아름다움과 마음속에 스며드는 황홀경, 그 위에 종교적인 엄숙함으로 마치 웅변하듯 강한 피아노 선율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Q. 기법상 협주곡 5번이 3번, 4번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협주곡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복잡함, 애매함과는 거리가 먼 극도의 ‘명쾌함’과 ‘밝음’이지요. ‘영웅’과는 달리 웅대함, 강인함을 연주자에게 요구하는 곡은 아니지만 1악장과 3악장은 강인한 요소만큼이나 많은 서정성을 가지고 있고 멜로디 라인도 비할 바 없이 밝고 아름답습니다. 그늘진 부분이라고는 1악장의 제2주제에서 잠시 비칠 뿐이며 2악장의 주제를 피아노가 연주하는 부분은 특히나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관현악 기법이 없어도, 난해한 기교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 곡은 충분한 화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심포니 송과의 연주가 처음이신데 특별히 기대하시는 바가 있나요?

무엇보다 함신익 지휘자님, 그리고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와 함께 베토벤의 황제 협주곡을 연주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곡 자체가 너무나 훌륭해서 여러 연주자들을 통해 이미 청중들에게 친숙한 곡이지만, 심포니 송과 제가 함께 만들어갈 황제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거라 많은 기대가 됩니다.

Q. 좋아하는 작곡가와 작품 말씀해주세요.

연주자는 자신이 연주하는 곡과 금방 사랑에 빠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주자가 곡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곡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하는 곡 들에게 제일 애정을 쏟는 성격이에요. 내가 그 곡을 사랑해야 좋은 연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베토벤의 황제가 제 마음에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최근에는 브람스의 음악이 점점 제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번스타인이 1988년 루체른에서 지휘한 브람스 심포니 4번을 좋아합니다.

함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VI

BEETHOVEN

Beethoven
by Lim and Symphony S.O.N.G



LUDWIG VAN BEETHOVEN

루트비히 판 베토벤 1770~1827

Piano Concerto in E-flat Major, Op. 73 "The Emperor"

피아노 협주곡 제5번 내림마장조, 작품번호 73 "황제"

I. Allegro 빠르게

II. Adagio un poco mosso 느리지만 다소 활발하게

III. Rondo: Allegro ma non troppo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INTERMISSION

Symphony No. 7 in A Major, Op. 92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번호 92

I. Poco sostenuto - Vivace 조금 억누르면서 - 아주 빠르게

II. Allegretto 조금 빠르게

III. Presto 매우 빠르게

IV. Allegro con brio 빠르고 생기있게

6

MASTERS SERIES



글 박희정(지휘자, 작곡가)
Heejung Park(Conductor, Composer)

Beethoven, Piano Concerto in E flat major, Op. 73 “The Emperor”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내림마장조, 작품번호 73 “황제”

전쟁과 영웅

19세기 유럽 대륙의 정치 지평을 뒤 흔들었던 나폴레옹(Napoléon Bonaparte, 1769~1821)은 프랑스 시골 하급 귀족 출신 군인으로 프랑스 혁명(Révolution française, 1789~1799) 시기 여러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이후 군사 쿠데타를 통해 프랑스 대통령이 된 후 “황제”에 즉위한다. 그는 통치기간동안 유럽 전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는데 이는 19세기 서양 문화, 예술, 사회, 정치에 걸쳐 두루 큰 영향을 주었다. 나폴레옹과 동시대를 살았던 작곡가 베토벤(Ludwig von Beethoven, 1770~1827)은 그가 1800년을 기점으로 유럽 각 지역의 부조리한 관습법(慣習法)과 봉건제도(封建制度)를 파기시킨 뒤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 ‘국가의 세속성’, ‘종교 및 경제 활동의 자유’ 등의 근대적인 가치관에 기반을 둔 세계 최초의 민법(民法)을 세우고 교육 및 교통망을 정비하는 것을 보며 나폴레옹이야말로 민중을 해방시킬 진정한 인본주의적(人本主義的) 구원자라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베토벤은 교향곡 제 3번을 통해 나폴레옹의 영웅 됄을 찬양하고 곡을 헌정(獻呈)하려 하였지만 1802년 나폴레옹이 봉건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소위 독재적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역행(逆行)을 보자마자 크게 분노하게 된다. 그는 당장 교향곡 헌정을 취소하였고 나아가 2악장을 장송행진곡으로 둔갑시킴으로서 나폴레옹에 대한 대단한 실망감을 표출하였다. 1806년 프랑스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륙봉쇄령(Continental Blockade)을 실행하는데 이는 산업 혁명의 성공으로 유럽 대륙에 저가의 고급 생필품을 공급하던 영국의 무역을 차단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속된 전쟁과 더불어 유럽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에 베토벤을 비롯한 많은 유럽인들의 나폴레옹에 대한 증오와 반발 감은 더해만 갔다. 결국 1809년 오스트리아 제국과 영국은 프랑스에 반격하기 위해 비밀리에 동맹을 맺고 대 프랑스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오스트리아는 대 프랑스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하지만 강력한 프랑스 군은 이내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고 소위 반란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게 되는데 이때 베토벤이 귀거하던 오스트리아 수도 빈(Wien)은 군부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베토벤 역시 큰 고통을 겪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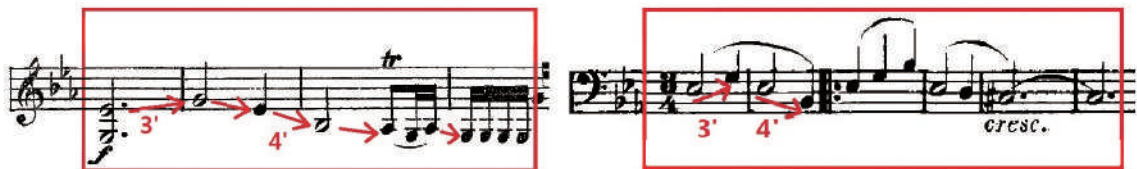
당시 베토벤의 개인적 경제사정은 좋지 않았는데 그의 후원자였던 리히노프스키 공작(Karl Alois Lichnowsky 1761-1814)과 결별하게 되어 후원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다행히 베토벤을 아끼던 빈의 귀족 롭코비츠 공작(Joseph Franz Maximilian, 7th Prince of Lobkowitz, 1772~1816), 킨스키 공작(Ferdinand, 5th Prince Kinsky of Wchinitz and Tettau, 1781~1812), 그리고 오스트리아 루돌프 대공(Archduke Rudolf of Austria, 1788~1831)이 연합하여 연금 형태의 후원을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장교 신분이었던 킨스키 공작은 군대에 복귀했다가 사망하게 된다. 또한 롭코비츠 공작은 전쟁으로 오스트리아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바람에 파산해 버리게 되었고 남은 루돌프 대공마저 피난을 떠나 후원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더군다나 전쟁으로 인해 빈의 모든 음악 활동이 중단되어 베토벤의 경제적 궁핍은 극에 달했으며 신변에 대한 불안도 컸다. 특히 당시 청력에 문제가 있었던 베토벤은 전쟁으로 인한 소음에 상당히 민감해 했는데, 하필 살고 있던 집 주변에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베토벤은 한동안 동생 카스파(Kaspar Anton Karl van Beethoven, 1774~1815)의 집 지하실로 피신해 지냈으며 이른바 황제 나폴레옹에 대한 원망과 증오는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런 혼돈과 참상의 시기에 탄생한 곡이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이다. 곡의 스케치는 1808년 12월 말 경에 시작되었으며 1809년 말에 완성된다. 초연은 약 1년 2개월 후인 1811년 1월 13일에 뮌헨의 궁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피난에서 돌아와 협연을 맡은 오스트리아의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되었다. 루돌프 대공은 베토벤의 후원자이자 친구였으며 1803년부터 그에게 피아노와 작곡을 배우고 있었다. 전쟁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작곡된 곡이라 믿기 힘들만큼 곡은 어둠과 두려움이 배제되고 우렁차고 건강한 기운으로만 가득하여 부제 “황제”의 품격과 리더십을 충분히 묘사하는 듯 보인다. 사실 “황제(Kaiser)”라는 명칭은, 베토벤의 친구인 독일계 영국인 피아니스트 겸 출판업자 요한 밥티스트 크라머(Johann Baptist Cramer, 1771~1858)가 런던에서의 출판을 위해 붙인 것인데,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봉쇄령을 강행한 나폴레옹에 대한 영국인들이 가졌던 적대감과 베토벤이 가졌던 경멸에 가까운 그에 대한 증오에 비추어 볼 때 황제가 나폴레옹을 지칭하는 것이라 보기 힘들다. 오히려 당시 프리메이슨 사상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 볼 수 있겠는데 베토벤과 크라머 모두 이 시기 프리메이슨 사상에 심취하여 있었고 이곡이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를 위시하여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Johann Christian Bach, 1735~1782), 글룩(Christoph Willibald Ritter von Gluck, 1714~1787) 등의 선대 작곡가들에 의해 확립된 소위 프리메이슨적 음악 상징(입교 의식과 그들의 세 개의 가치(자유, 평등, 박애: 이는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이기도 하였다))기법을 따르는 점으로 보아 베토벤은 이곡에서 인본주의적 해방자로서의 영웅을 그려낸 것으로 보인다. 이 곡이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Die Zauberflöte, K. 620)와 같은 Eb 장조가 쓰인 점, 마술피리 및 교향곡 39번에서의 세 번의 상징적 팡파르와 동일하게 곡이 시작되는 점, 특히 교향곡 39번 1악장의 경과주제와 베토벤의 3번 교향곡 “영웅” 주제에서 본 협주곡의 1악장 주제가 파생된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중(意中)이 크라머의 제안과 맞아 떨어져 나폴레옹을 겨냥한 소위 풍자적 의미에서의 “황제”라는 표제를 사용하게 된 이유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1악장의 군악 행진곡(Military March)을 연상시키는 리듬과 짜임새, 그리고 3악장 주제의 진취적인 도악형태가 전쟁의 상징한다는 견해도 다소 존재하는데 이를 종합해보자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은 그릇된 “황제”에게 대항하는 참된 영웅에 대한 염원을 담은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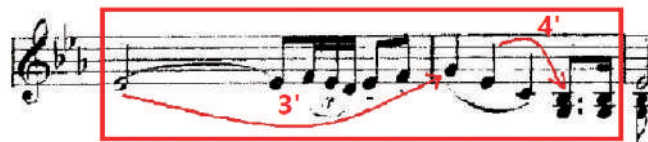
출판은 1810년 11월에 먼저 런던의 클레멘티 출판사(Clementi Publisher)를 통해 간행되었고, 이듬해인 1811년 2월에 비로소 라이프치히의 브라이트코프 운트 헤르텔 출판사를 통해 간행되었다. 베토벤의 다른 곡에 비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사후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에 의해 점차 그 진가가 알려지게 된다.

1악장 Allegro

베토벤이 즐겨쓰는 변형된 소나타 형식으로 각 단락 주제는 대개 두 개 이상의 동기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동기에서 파생되는 2개 주제에 의한 소나타 형식의 전통적인 화성적 관계보다 조금 더 복잡한 화성 논리가 전개된다. 서주에서는 세 개의 웅장한 팡파르가 프리메이슨의 가치를 선언하는 가운데 화려한 독주 카덴차(Cadenza)가 뒤따르는데 이는 모차르트 39번의 서주와 짜임새가 아주 유사하며 오페라 마술피리의 주된 팡파르 동기와도 작곡 의도가 일맥상통한다.



[모차르트 교향곡 제 39번 1악장 경과부 주제와 베토벤 교향곡 3번 1악장 영웅 주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1악장 제 1주제]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 악보를 보면 이 교향곡의 제 1주제는 꾸밈 음을 제하면 모차르트 교향곡 제 39번의 경과 주제와 본인의 영웅 교향곡 1악장 주제의 형태(3도上行, 4도下行)와 매우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강력한 다이내믹의 1도 화성은 시적자아(詩的自我) 내지는 영웅을 상징하기 일쑤인데, 이러한 연유로 작곡가 본인의 강력한 생의 의지와 자아를 강조하기 위해 베토벤은 그의 여타 많은 곡에서도 1도 화성을 강조, 반복한다. 황제가 제 1주제 위에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후 이어지는 경과부 주제는 그의 위엄과 권위, 강력한 리더십을 선전하는 듯 장엄하다. 제 2주제는 행진곡 풍으로 단조로 등장하는데 역시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조성의 변화는 오케스트라에 의한 제시부에서 Ebm → Eb, 피아노 솔로에 의한 제시부에서는 Bm → Bb(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의 제 2주제 조성), 그리고 재현부에서 C#m → Eb(본 조성으로 회복)으로 디자인되어 복잡한 관계와 전통적인 조성 관계를 병행하고 있으며 현대적 세련미와 고전주의적 형식미 모두를 만족시킨다.



[1악장 제 2주제]

일반적인 협주곡과는 달린 즉흥에 기초한 상당한 분량의 카덴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음악학자 윌리엄 킨더만(William Kinderman, 1952-)은 베토벤은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기에 피아니스트에 대한 기준이 높았는데 이 시기 이후로 본인이 피아노를 연주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다른 솔리스트가 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베토벤은 연주자의 즉흥에 의한 카덴차를 철저히 금한 것이라 해석한다. 1악장 코다 앞에 주어지는 전통적인 페르마타(Fermata)에서 카덴차가 의례히 유도된 듯 화성이 진행되지만 베토벤은 절대로 카덴차를 임의적으로 넣지 말라고 악보에 지시해 두었다. 남성적이며 영웅적인 여러 주제들과 전장의 나팔소리 사이로 피아노 솔로는 기교적이기보다는 단순하지만 정열적인 에너지의 스케일과 옥타브 연주에 주목하는데 이는 마치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무지막지한 전투를 묘사하는 듯 하다. 그의 유명한 3번, 그리고 4번 피아노 협주곡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유대인 이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은 이 협주곡을 “군대 개념의 신격화(the apotheosis of the military concept)”이라 칭송하기도 하였다.

2악장 Adagio un poco mosso

변주곡 형태로 석양이 보이는 궁전 발코니에서 향수에 젖은 황제의 인간적인 면모를 묘사하는 듯 현악파트에 의해 소개되는 주제 선율은 매우 서정적이며 아름답다.



[2악장 변주 주제]

이 우아한 주제는 후일 베토벤의 제자 체르니(Carl Czerny, 1791~1857)에 의해 오스트리아 순례의 노래에서 차용된 것이라 밝혀진다. 나폴레옹이 빈에서 물러간 후 베토벤은 전쟁 이후의 참상과 고통에 대해 “죽어버린 평화”라며 절망하였다. 그러한 상념(想念)이 잘 반영된 듯 곡은 매우 차분하고 명상적이며 종교적이기까지 하다. 변주곡 형태를 취한 이 악장은 나장조(B major) 즉 Eb장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조성에서 연주된다. 참담한 현실에서 잠시 떨어져 평화로운 고향 내지는 그러한 시절을 그리는 작곡가의 마음이 담겨있는 듯 애달프다.

3악장 Rondo: Allegro ma non troppo

음악은 절망을 딛고 힘차게 뛰어 오른다. 일곱 부분으로 구성된 론도 형식(론도 → A → 론도 → B → 론도 → A → 론도)의 악장으로 피아노에 의해 웅숭음치는 론도 주제는 승리를 향한 발걸음을 춤곡 풍으로 승화시켜 놓았다.



[3악장 론도 주제]

론도 주제는 이미 2악장 마지막에 암시되어 있어 아타카(attaca)로 연결되는 두 악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두었다. 또한 반주와 선율 사이에 헤미올라(2:3) 리듬이 복합되어 있으며 선율에서는 3/4 박절감에서 6/8 박절 감으로 리듬이 해결되어 흥미로움을 더한다. 밝고 건강하며 진취적인 에너지가 기분 좋은데 코다로 가기 전 팀파니에 의해 지속적 으로 연주되는 리듬은 곧이어 2부에서 연주될 교향곡 7번의 가장 중요한 리듬이기도 하다. Adagio로 조용히 끝내는 듯싶다가 론도 주제를 불현듯 힘차게 외치며 재미있게 악장을 마친다.



Beethoven

Piano Concerto in E flat Major, Op.73 “The Emperor”

The Piano Concerto No. 5 in E-flat Major, Op. 73, known as the Emperor Concerto is a concerto composed by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for piano and orchestra. Beethoven composed the concerto in 1809 under salary in Vienna, and he dedicated it to Archduke Rudolf, who was his patron, friend, and pupil. Its public premiere was on 28 November 1811 in Leipzig, with Friedrich Schneider as the soloist and Johann Philipp Christian Schulz conducting the Gewandhaus Orchestra. The work's military aspects and symbolism characterize its heroic style. Beethoven used fresh approaches with the piece, such as beginning the solo entrance without orchestral introduction, lengthening the concerto, and creat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piano and orchestra. The origin of the nickname is uncertain; it may have been coined by Johann Baptist Cramer, the English publisher of the concerto. The concerto has no association with Napoleon as it's well known that Beethoven would have disliked it due to his disapproval of Napoleon's conquest. As part of his repertoire, Franz Liszt frequently performed the concerto throughout his life. Since 1912, it has been recorded numerous times by classical pianists.

The piece begins with three full orchestra chords, each followed by a short cadenza by the solo, improvisatory in nature but written out in the score. These short cadenzas return intermittently throughout the piece. Beethoven began experimenting with the manner in which one or more solo instruments introduced music. Beethoven had already explored such possibilities in his Piano Concerto No. 4, but the monumental piano introduction in Piano Concerto No. 5 foreshadowed future concerti such as Mendelssohn's Violin Concerto or Tchaikovsky's Piano Concerto in B-flat minor.

The first movement is deceptively complex. Despite its use of simple chords, including the second theme constructed almost entirely out of tonic and dominant notes and chords, it is full of complex thematic transformations. The complexity is intensified once the piano enters with the first theme, as the expository material is recurring with far more complex variations, virtuoso figurations, and complex modified chords. The second theme enters in the surprising key of b minor before moving to B Major and at last the expected key of B-flat Major several bars later. The orchestral exposition is a typical two-theme sonata exposition, but the "second exposition" with the piano has a triumphant virtuoso as a sort of the third theme at the end that belongs solely to the solo instrument. The coda at the end of the movement is quite long and, again typical of Beethoven, uses the open-ended first theme and gives it closure to create a satisfying conclusion.

The second movement in the far distant key of B Major, shares with the opening E-flat Allegro a departure from conventional structure for a concerto movement, here comprising a sustained orchestral hymn around which the piano weaves brittle figures in the sixteenth and triplet eighth notes. It leads directly into the final rondo. But the transition explores deeper. David Cairns provides a compelling description:

"The magical sounds gradually die away into silence and the music comes to rest on a low B. There is a sudden change of color and the B turns into B flat. The piano tries out, softly to itself, a new theme on an arpeggio of E-flat in a rhythm that seems to be forming itself in the void left by the Adagio, while the strings listen in puzzlement, pluck a helpful chord or two. Having found the theme satisfactory, the piano abruptly breaks into the finale like an inspired improviser, takes the main theme through an adventurous succession of keys with a dazzling variety of decorative invention."

Joining middle to the final movement was itself not innovative. Beethoven himself had already done so in the 4th Concerto, and in his 1805 "Appassionata" Sonata, 1806 Violin Concerto and 1808 Fifth and Sixth Symphonies. But not many previous composers had created such a magical.

The final movement of the concerto is a seven-part rondo form (ABACABA). The solo piano introduces the main theme before the orchestra settles the soloist's statement. The rondo's B-section begins with piano scales before the orchestra again responds. The C-section is much longer, presenting the theme from the A-section in three different keys before the piano performs a passage of arpeggios. Rather than finishing with a strong entrance from the orchestra, the trill ending the cadenza dies away until the introductory theme reappears, played first by the piano and then the orchestra. In the last section, the theme undergoes variation before the concerto ends with a short cadenza and vigorous orchestral response.

Beethoven, Symphony No. 7 in A Major, Op. 92

베토벤,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번호 92

음계와 리듬, 다시 음악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륙봉쇄령의 폐단은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1809년 웰링턴(Wellington) 전투 패전으로 인한 프랑스의 이베리아 반도(Península ibérica) 점령 실패 및 러시아 원정 실패(1812년)로 나폴레옹의 위세는 꺾이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유럽 대륙의 전쟁의 소용돌이는 점차 가라앉아 모든 것이 제자리를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베토벤은 빈 귀족들로부터 다시 후원을 받기 시작하여 생활이 안정되었고 다시 작곡과 연주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완성, 초연하고 난 직후 1811년에서 1812년에 걸쳐 이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구상은 1809년에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작곡은 1811년 말에 이르러 보헤미아의 휴양지 테플리스(Teplice)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시작되었으며, 1812년 5월 완성된다. 초연은 1813년 12월 8일에 빈 대학 강단에 서 제 6차 대 프랑스 동맹 전쟁 “하나우(Hanau)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부상당한 오스트리아 병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 자선 음악회에서 이루어졌다. 베토벤은 이 교향곡에서 6번 교향곡과 같은 자연에 대한 묘사, 당시 시대 상황, 또는 연주회 성격 등을 염두에 두는 소위 음악 외적인 작곡 동기에서 벗어나 리듬과 음계를 중심으로 음악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간다. 즉 음악 그 자체의 기쁨을 무곡 리듬으로 표현하면서 고전주의로 회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이는 그의 8번 교향곡에까지 이른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에 관해 음악 그 자체에서 인본주의 근간의 해법을 찾고자 했던 9번 교향곡에 이르면 그 선행(先行)된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곡에서 베토벤은 5번 운명 교향곡에서 제기된 물음에 대하여 음악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정직하고 원초적(原初的)인 기분 좋은 리듬과 음계의 제스처들이 이 한 음악에 집대성 되어 우리를 신나는 축제의 장으로 이끈다. 음악이 음악 외적인 메시지를 수반하지 않고 본연에 충실할 때 청자에게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탓인지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베토벤의 모든 교향곡 중 이 교향곡의 공연 횟수가 가장 많다. 악보의 초판은 1816년 5월에 빈의 슈타이너 출판사(Steiner & Comp.)를 통해 간행되었으며 헌정은 모리츠 폰 프리스 백작(Count Moritz von Fries, 1719~1785)에게 이루어졌다.

1악장 Poco sostenuto - Vivace

화성의 기본음들로 만들어진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목가풍(牧歌風)의 첫 소절이 시작되고 곧 이어 증기 기관차의 거친 움직임 같은 역동성이 더해져 힘차게 서주를 채워 나간다. 그의 다른 교향곡들에서는 동기와 주제가 짧지만 대단히 정밀하고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데 반해 이 서주는 복잡한 설계 없이 단순 스케일과 화성의 기본음들로 구성되어 있어 언뜻 봐서는 의아해 보일 만큼 너무 쉬워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음악 그 자체에 집중하려는 베토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음악의 기본 즉 음계와 리듬(서양 시문학 운율에 기초한 원초적인 리듬) 자체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로 볼 수 있다. 장려했던 서주에 마지막에 이르면 마치 살포시 무릎 인사와 눈짓으로 미소를 교환하기도 하는 듯 아기자기한데 바이올린과 목관이 마치 꾀꼬리가 서로 대화하듯 예쁜 리듬을 주고받으면서 제시부를 연다.



[1악장 제 1주제]

플루트가 가벼운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며 호숫가 오솔길에 그 발걸음을 내딛으면 첫 주제가 본격적으로 기분 좋게 등장한다. 주제는 리듬이 주인 동기 A와 선형적인 동기 B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기 A는 앞서 협주곡의 마지막 악장에서 코다의 팀파니 리듬이다. 그 행복한 주제는 합창으로 이어지고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웃음이 가득한 가운데 악장 전체를 가득 메운다. 시종일관 반복되는 동기 A의 리듬은 사실 시문학에 사용되는 이중 닥틸(Double Dactyl, '장단단(長短短)'격 운율의 변주형태(3:1:2 길이 비율))이다. 국악이 전통 장단에 기초하여 있듯이 서양 음악은 시문학에서 발전된 운율(韻律)에서 그 리듬적 기원을 찾는다. 닥틸은 존 홀랜더(John Hollander)의 시 'Gigue'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

데 우리가 “벤~자민(Ben~jamin), 해~리슨(Ha~risson)” 또는 “암~스텔담(Am~sterdam), 암~스텔담”을 연거푸 반복해서 말할 때 입술과 턱을 통하여 전해지는 리듬감이 그것이다. 이 신명나는 리듬은 악장 전체를 통틀어 최면을 걸 듯 무한 반복되는데 그 묘한 매력에 우리의 어깨가 쉴 틈이 없다.



[1악장 제 2주제]

두 번째 주제는 비교적 짧은데 바이올린과 저음 현이 캐논(Canon) 식으로 엇갈려 나오는 가운데 내성부의 빠른 패시지가 재미있다. 어두운 면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긍정적인 이 악장은 즐겁게 콧노래 흥얼거리며 사방 팔방 강충강충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함박웃음처럼 상큼하고 귀엽다. 음악이 주는 이 원초적인 기쁨에 전쟁과 사회 문제로 골치 아픈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2악장 Allegretto

Dactyl 즉 ‘장단단(長短短)’격의 리듬이 이번에는 장송곡 풍으로 다소 우울하게 다가온다. 복합 세도막 형식으로 이 곡은 이 교향곡에서 가장 느리고 어두워 보이는 악장이지만 초연 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악장이기도 하다. “조금 빠르게, Allegro보다 다소 느리게”라고 알려진 “Allegretto” 빠르기말은 사실 19세기 이후 영어권에서 음악 용어로 편찬,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인된 경향이 있다. 원어의 뜻은 “조금씩 명랑하게”이며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 악장은 장송곡과도 꽤 거리가 있다. 또한 그의 다른 교향곡의 분명히 느린 빠르기의 악장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아름다운 녹턴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후대에 전체 교향곡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연주되기도 하였다.



[2악장 주제와 첼로의 대선율]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이 주제를 바탕으로 변주곡을 남기고 있으며,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는 이 악장을 불멸의 알레그레토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느린 2박 계통의 패세지가 차분한 노래를 반복하고 나면 전원풍의 평화로움이 클라리넷과 바순에 의해 중반부에 소개된다.



[2악장 중반부 주제]

아쉬운 듯 그리운 듯 긴 숨으로 지그시 눈을 감고 부르는 이 아리따운 노래 후에 다시 처음 장송곡 풍의 주제가 악기별로 교차해 등장하면서 어두운 에너지를 쌓아 가면 오케스트라 전체가 목청껏 Dactyl 운율을 죽음의 리듬으로 뒤바꾸어 울부짖는다. 전원풍의 곡이 또 반복되고 어두운 기운이 교차되고 난 후, 무엇인가 아쉬움을 토로하듯 거친 숨을 내쉬며 곡을 마무리한다.

3악장 Presto

언제 그랬냐는 듯 2악장의 음울함을 단번에 씻어버리고는 Tribrach 운율 즉 '단단단(短短短)'격의 짧고 빠른 반복적인 리듬이 뇌세포를 격하게 자극하며 스케르초 춤곡을 시작한다.



[3악장 스케르초 주제]

2마디의 갑작스런 합주 후 4마디 간격의 대칭성과 경쾌한 리듬이 등장하여 곧장 어깨춤을 이끌어 내는가 하면 중간 중간 깜짝깜짝 보이는 엇박의 강한 제스처와 비대칭적인 구조가 우리의 지성을 마구 헛갈리게 하는데 이를 구사해내는 베토벤 특유의 위트가 참 재미있다. 빠른 스케르초가 정신없이 지나고 나면 난데없이 등장하는 리듬감 없는 선형적 합주가 느릿느릿 여유부리다가 또 깜짝 스케르초가 반복되면서 재미있는 음악놀이를 즐긴다. 코다에서는 트리오의 여유가 잠깐 회상되지만 이내 강렬한 투티로 곡을 서둘러 끝마친다.

4악장 Allegro con brio

재미있는 3악장의 음악유희가 끝나 바쁜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2악장 죽음의 Dactyl 리듬이 1악장에서의 변주보다 더 빠르고 경쾌한 축제의 리듬으로 변형되어 폭발한다.



[4악장 주제]

바커스(Bacchus) 신의 '술의 향연'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자극적이고 경쾌한 이 축제의 리듬이 우리의 숨을 주저함 없이 험쩍이게 만드는데 싱크페이션(Syncopation, 약박에 예기치 않게 강한 음이 교차되는 형태)이 정박의 패턴과 불규칙적으로 어우러져 정신없이 우리의 시간관념을 빼앗는가 하면 (십육분)음표들이 인지하기도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내달린다. 또한 소절 소절의 전환이 예기치 못하게 이루어지고 고집스럽게 반복되는 부점 리듬의 흥겨움이 더해져 축제를 더욱 뜨겁게 고조시킨다. 불규칙성과 비대칭성을 빠른 템포 안에서 한데 뒤섞어 베토벤만의 어휘로 경쾌하게 풀어낸 것이 매력적인 악장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든 간접적인 우리에게 이든지 그 피로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지독하다. 사람들은 행복한 결말을 원하지만 세상의 이해관계는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그저 영웅을 바라고 천운을 기대하며 천재적인 누군가가 등장해 모든 매듭을 풀어 줄 것을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이전에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음악이 선사해 주는 순수한 기쁨을 누리보자. 7번 교향곡의 열정적인 닥틸 리듬과 황제 협주곡의 가슴 벅찬 선율을 통해 모두가 위로 받는 이 저녁 심포니 송 연주회를 기대한다.

Beethoven

Symphony No. 7 in A Major, Op. 92

The Symphony No. 7 in A major, Op. 92, is a symphony in four movements composed by Beethoven between 1811 and 1812, while improving his health in the Bohemian spa town of Teplitz. The work is dedicated to Count Moritz von Fries. At its premiere at the University in Vienna on 8 December 1813, Beethoven remarked that it was one of his best works. The second movement, "Allegretto", was so popular that audiences demanded an encore. The "Allegretto" is frequently performed separately to this day. When Beethoven began composing the 7th Symphony, Napoleon was planning his campaign against Russia. After the 3rd Symphony, and possibly the 5th as well, the 7th Symphony seems to be another of Beethoven's musical confrontations with Napoleon, this time in the context of the European wars of liberation from years of Napoleonic domination.

The opening movement of Beethoven's Seventh Symphony begins with a lengthy introduction of chords and scales, setting the stage for our musical journey for the next 40 minutes. Devoid of a clearly articulated melody that, conventionally, would be used as a launching point for the exposition and development of the work, the introduction fluctuates between several keys, stirring with an air of anticipation of almost reckless simplicity. Ever so gradually, with a delicious feeling of suspense, Beethoven draws the exposition of the work from the last flickers of the introduction. We are driven forward with a fierce energy and speed dominated by a single propulsive dactyl rhythm. The movement, as is so often the case in the opening movement of a Beethoven symphony, contains the coda that is virtually another development. Beethoven pulls the music to a tremendous climax by holding a crescendo across a tenfold repetition of an obsessive, harmonically off-balance bass that will only resolve during the finale of the work.

The second movement in a minor has a tempo marking of allegretto, making it slow only in comparison to the other three movements. This movement was encored at the premiere and has remained popular since. Its reliance on the string section makes it a good example of Beethoven's advances in orchestral writing for strings, building on the experimental innovations of Haydn. The movement is structured in ternary form. It begins with the main melody played by the violas and cellos, an ostinato dactyl rhythm.

The third movement, the scherzo, consists of two sections: the opening and the trio. Beethoven requests the tempo of the opening as presto and the trio as "very much less fast." The ambiguity of the composer's instructions was certainly intentional. Although sharply defined and superbly controlled, the entire movement mocks the form of the scherzo, which is itself a form of music designed to be a joke. Normally, the opening section of a scherzo returns after the trio, and the movement concludes. The trio attempts to make the third appearance, but is instantly swept away as the orchestra closes out the movement.

The work's finale unleashes musical energy to an extreme level. A truly wild and swirling motion ties together the whole work, creating one central musical idea tightly controlled with the best rhythmic accuracy. New themes are introduced and propel the music forward, but the movement ends with a recall of the opening theme at the start of the symphony. The entire symphonic experience concludes with a content feeling of musical satisfaction and resolution that Beethoven serves all too well.



심포니 송의 프로들

예 술 감 독	함신익
바 이 올 린	송지원 임누리 오하은 김세은 김희영 문수빈 박윤정 박 현 손지오 옥영미 윤수정 이다정 이지현 전지은 조아라 최규리 최보경 홍예슬
비 올 라	한연숙 임선영 안예림 윤소은 조혜민 황유선
첼 로	오재경 김소을 이한효 이혜인 정혜슬 홍지희
더블베이스	고부현 김민수 윤영진 윤철원
플 루 트	김소희 하종수
오 보 에	양희재 이혜빈
클 라 리 넷	곽지현 이현석
바 순	이민철 고수경
호 른	이석준 선수경
트 럼 펫	이진규 이창민
팀 파 니	Sheng-Wen Lee
크리에이티브팀	고희진 이성준 정다윤 정연희 한지민

*명단은 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단 원
인터뷰

바이올린 오하은

Violin Haeun Oh

줄리아드 음악대학 학사 및 석사 졸업
예전음악콩쿠르 현악대상
신예음악콩쿠르 1위
현 심포니 송 바이올린 부수석

Q. 좋은 소리를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소리를 만든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바이올리니스트의 관점으로 볼 때, 자기 악기를 잘 이해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연주자, 정확한 기술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좋은 연주자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리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음악과 소리를 그대로 악기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악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Tone-Quality 대한 부분인데, 정확한 음정, 아름다운 비브라토, 깔끔한 아티큘레이션, 정돈된 보잉, 그리고 음악적 해석 등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Q. 심포니 송에서 어떤 공연이나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희 오케스트라에서 전국에 있는 소년원 투어 연주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처음엔 소년원에서 연주한다고 했을 때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우리 음악을 좋아해 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서 연주하니 저희의 음악을 좋아해 주고 즐거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무척 감동 받았어요. 아무래도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을 텐데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공연을 선물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게 온 힘을 다해서 음악을 만드시고 열정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지휘자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Q.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저의 타인의 치유를 경험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평생의 목표입니다.

사람마다 목소리와 성격이 다르듯이 연주자마다 자신의 고유한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각각의 소리가 특별합니다. 그 고유함 안에는 연주자 개개인의 취향, 성향, 성격, 인품이 담겨 나오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많은 음악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알아가고 그들의 연주를 들을수록 본인들만의 색이 강한 음악을 하는 것을 느껴요. 그만큼 음악은 한명의 사람, 인생을 오롯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삶에 치여 사는 현대인들에게 음악을 듣는 그 순간 만큼은 힘든 일들은 다 잊게 만드는 따스함과 감동이 있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Q.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를 준비하는 과정 중 어떤 점이 오하은님께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나요?

저는 심포니 송의 젊은 연주자들에게서 느껴지는 열정과 에너지가 좋아요. 모든 연주자들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열의가 느껴져서 같이 호흡하고 연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각자의 기량도 넘쳐나지만 서로 다른 연주자들의 음악을 존중하며 호흡하는 순간이 좋습니다. 특히 심포니를 연주할 때는 거의 백 명의 연주자가 같은 생각과 호흡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데, 심포니 송 연주자들은 자신의 기량을 뽐내면서 동시에 서로의 생각과 호흡을 같이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심포니 송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미래에 어떤 음악적인 도전을 시도하고 싶으신가요?

아직 귀국 후에 실내악 연주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레퍼토리로 많이 연주하고 싶어요. 7월 6일, 13일 그리고 8월 18일에 일신홀에서 있을 심포니 송 실내악 페스티벌에서 관객분들께 저의 실내악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함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VIII

위대한 차이코프스키와 슈베르트

THE GREAT TCHAIKOVSKI & SCHUBERT

Tchaikovsky: Violin Concerto in D Major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Schubert: Symphony No. 9 in C Major, D. 944 'The Great'

슈베르트: 교향곡 제9번 '그레이트'

2023. 10. 17. Tue. 7:30pm
롯데콘서트홀

 객원지휘 **대럴 앙** Darrell Ang, Guest Conductor
 바이올린 **송지원** Ji-Won Song, Violin

SHINIK HAHM & SYMPHONY S.O.N.G 2023 MASTERS SERIES



8

함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IX

이정현의 첼로 퍼레이드 '드보르자크와 굴다'

DVOŘÁK & GULDA BY CELLIST CHRISTINE J. LEE

Dvořák: Slavonic Dances No. 1-8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제1-8번

Dvořák: 'Sileint Wood' for Cello and Orchestra

드보르자크: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고요한 숲' 외 1곡

Gulda: Concerto for Cello and Wind Orchestra

굴다: 첼로와 관악합주를 위한 협주곡

2023. 11. 18. Sat. 8:00pm
롯데콘서트홀

 지휘 **함신의** Shinik Hahm, Conductor
 첼로 **이정현** Christine J. Lee, Cello

SHINIK HAHM & SYMPHONY S.O.N.G 2023 MASTERS SERIES



9

함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X

2023 송년음악회 '합창'

BEETHOVEN'S 'CHORAL' SYMPHONY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Choral'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합창 **국립합창단**

 소프라노 **김순영**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이명현** 바리톤 **김정래**
2023. 12. 14. Thu. 7:30pm
롯데콘서트홀

 지휘 **함신의** Shinik Hahm, Conductor

SHINIK HAHM & SYMPHONY S.O.N.G 2023 MASTERS SERIES



10



2023 BRAHMS FESTIVAL 2

함신익의 브람스

지휘 함신익
Shinik Hahm, Conductor

Brahms
Symphony No. 3 in F Major
브람스: 교향곡 제3번

Brahms
Symphony No. 1 in c minor
브람스: 교향곡 제1번



2023. 9. 9. Sat. 8:00pm 롯데콘서트홀 | LOTTE CONCERT HALL

티켓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 549 0046 | 02 549 0947 예매 롯데콘서트홀 YES24.COM 공연

후원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하나은행 SAMSUNG FST SEBOMG DSK TSE GOLFZON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COSMOS CORPORATION 화광교역(주)

SERIES I

바람과 실

 When the strings
meet the winds

 2023. 07. 06. Thu.
7:30pm

 ILSHIN HALL
일신포

Messenger

Solo de concours

Mozart

Flute Quartet in D Major K. 285

Saint-Saëns

 Tarantelle for flute, clarinet
and piano, Op. 6

Tchaikovsky

"Souvenir de Florence" Op. 70

강석원 김상균

김소희 문수빈

안예림 오재경

오하은 이한효

조혜민 한지민

SERIES II

**Deqing Wen &
Beethoven**

 2023. 07. 13. Thu.
7:30pm

 ILSHIN HALL
일신포

Deqing Wen

The Trill of Steppe for Piano Trio (1997)

Ink Splashing for String Quartet (2017)

 Love Song and River Chant
for Piano Solo (2006)

박희정

String Quartet No.1 (세계초연)

Beethoven

 Piano Trio No. 4 in B♭ Major, Op. 11
'Gassenhauer'


김상균 오하은

장서운 허 철

한지민

SERIES III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
초청 콘서트**

 2023. 08. 18. Fri.
7:30pm

 ILSHIN HALL
일신포

Spohr

 Fantasy and Variations on
a Theme by Danzi, Op. 81

Françaix

 Quintet for Clarinet
and String Quartet

Brahms

Clarinet Quintet in b minor, Op. 115



고부현 김상윤

송지원 심효비

오하은 허 철



심포니 S.O.N.G 법인 / 개인후원 안내

구 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예우
마에스트로	3억원 이상	기업연주* 6회 제공 2023시즌패스 - R석 40매, S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 스 터 즈	1억원 이상	기업연주* 2회 제공 2023시즌패스 - R석 25매, S석 25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익 기업방문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광고
말 러	5000만원 이상	기업연주* 1회 제공 2023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 램 스	3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2회 제공 2023년 시즌패스 - R석 1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브 루 크 너	2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3년 시즌패스 - R석 10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슈 베 르 트	1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3년 시즌패스 - R석 10매 증정	
베 토 벤	500만원 이상	2023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추가구매티켓 20%할인	
쇼 팡	300만원 이상	2023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추가구매티켓 20%할인	
모 차 르 트	100만원 이상	2023년 시즌패스 4회 - S석 2매 증정 추가구매티켓 20%할인	
하 이 든	1만원 이상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Melodia' 법인 후원약정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Mobile	
	E-mail	
약 정 금 액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원 ☐ 5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10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 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 개인

또는

☐ 법인

약정금액

성 명

연 락 처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시냇 물이 흘러 큰 바다를 이루듯
여러분의 작은 적성이 저희에게는 큰 후원이 됩니다.

‘Melodia’ 개인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Mobile	
	E-mail	
약 정 금 액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원	
	☐ 5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10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 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함신익과 심포니 송 정기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후원 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셔

언더프레셔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MARKET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셔를 검색하세요.



OFFLINE SHOP



<언더프레셔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 www.underpressure.co.kr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Beyond to the world
FA&BIO
Global **No.1** Company
DSK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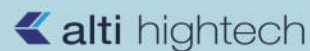
FA부문 - FPD&SOLAR&의료장비, Linear System, Laser System, Probe
BIO부문 -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러, 바이오베터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러,
바이오베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판매



Diode Pumping Solid
State Laser End Pumped
Laser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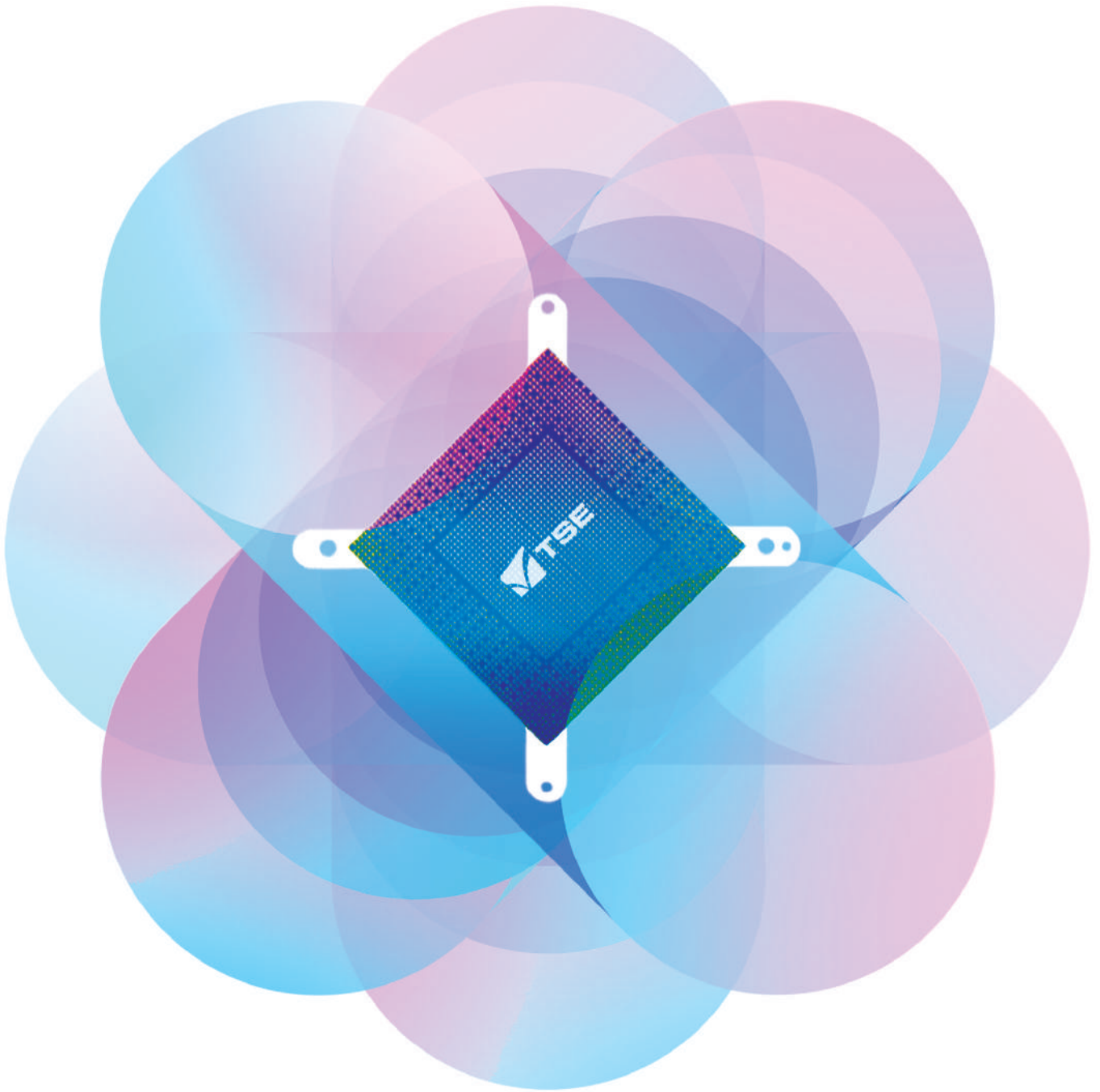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LFZON NEWDIN GROUP



TUNE THE 5G WORLD

TSE는 초고속 반도체에 대한
TOTAL TEST SOLUTION을 제공합니다.



TSE IS A GLOBAL LEADER IN HIGH-SPEED AND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TEST EQUIPMENT.
TSE IS A PREMIER SUPPLIER OF BOASTING A BROAD RANGE OF PROBE CARD FOR WAFER SORT AND TEST INTERFACE AND SOCKET SOLUTIONS FOR PACKAGE TEST WHICH IS THE MOST DEMANDING TEST SCENARIOS.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189
www.tse21.com
TSE Co., Ltd.

기술이 힘이다!

세계 최고의 전자소재기업, EG

전자기기 부품, 연료전지, 전기차, 수소차까지 대한민국 친환경 소재 산업을 위한

EG의 새로운 기술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최초와 최고의 기록으로 생활 속 친환경 소재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EG, 작은 소재 하나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전자소재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EG
www.egcorp.co.kr

leuto™

레우토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